

간호관리료 신고의무화 대책 촉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월 24일 실시했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신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10월 24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의무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9년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면서 "이 제도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사 확보와 질 높은 간호서비스 실시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신고율이 100%이고, 종합병원의 신고율이 90% 수준인데 비해 병원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의 신고율은 충남 12%, 전북 13%, 경북 16%, 강원 17%, 충북 18% 등 대체로 지방병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해 7등급을 받게 되면 간호관리료가 감소되기 때문에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악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는 병상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존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한 바 있고, 수년째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면서 "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확한 간호인력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방병원의 경우 적정 간호사 수를 맞추기 어려워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중증병원 간호등급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제인 케어'에 대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등이 지적됐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축하연

김조자 연세대 명예교수 -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인 김조자 연세대 명예교수(오른쪽에서 일곱째)와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오른쪽에서 여덟째)이 내빈들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제46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인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와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을 위한 축하연이 10월 27일 오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축하연에 앞서 나이팅게일 기장 시상식이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식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간호사는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모두 57명이다.

축하연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김조자 명예교수의 모교인 연세대 간호대학,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의 모교인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생을 간호사업에 헌신하며 간호교육과 실무 발전을 선도해오신 두 분의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면서 "수상자들의 고귀한 업적을 후배들이 잘 이어받아 간호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자"고 말했다.

축사를 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간재원 대한적십자사 재난안전국장 대독)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면서 "두 분의 훌륭한 간

호정신이 후배들을 통해 계승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필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김모임, 박정호, 최영희,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과 나이팅게일 기장 역대 수상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원로회원, 시도간호사회 및 신간단체 회장, 수상자의 가족과 모교 동문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의 공적에 대해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장이 소개했다.

답사를 한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는 "귀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팅게일은 특출한 학문적 경륜, 사람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경외심, 간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성 교육과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오늘날 간호사들이 사랑받는 전문직으로서 귀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특기이며, 그 특권을 허락받은 간호사가 됐다는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남은 삶도 제게 맡겨진 일과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의미 있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은 답사를 통해 "귀하고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국민들에게 좋은 간호를 해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늘 조심하고 애썼으며 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병원간호사의 위상이 높아져야 전체 간호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의 건강권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간호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간호전문직이 될 수 있다"면서 "간호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나설 수 있는 전문직이며, 앞으로 후배들이 더 열심히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을 위한 축하케이크 자르기와 축가가 이어졌다.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 최영희 회장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축하연에 앞서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 대한간호협회, 연세대 간호대학,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기념패와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보내온 나이팅게일 초상화를 전달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2017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3:00~17:00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슬로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전행사 (13:10~14:00): 총동영상 상영, 포토존 등 이벤트, 문화공연 공식행사 (14:00~15:30): 개회선언, 개회사 및 축사, '간호정책 선포식', 정책 영상물 상영, 슬로건 제창 및 퍼포먼스 식후행사 (15:50~17:00):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
---	---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사업시행결과 보고받아

대한간호협회는 대표자회의를 10월 27일 협회 대강당에서 열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진,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신간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올해 간호협회가 추진한 사업시행 결과보고 및 회계보고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관련 정책활동 등이 보고됐다.

또한 11월 14일 열릴 예정인 '간호정책 선포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하반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했다. 실제 투입 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인력산정 기준은 외국과 달리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증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둘째,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시범 운용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

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이뤄진 결실이다. 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관리료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이슈로 다뤄지도록 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신발도 과학이다. 이제 건강을 신자!

발 피로를 풀어주는 세계적인 특허제품인 NABE 간호사 건강신발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5컬레이상 주문시 : 10%DC
10컬레이상 주문시 : 15%DC
20컬레이상 주문시 : 20%DC

2011년 신제품
기능성 벨크로타입 출시

•NB-C05
- White
- 소재 : 합피, 소 가죽
- size : 225~250mm
- 가격 : White ₩34,000

2컬레이 이상 주문시 : 10% 할인

신제품(고급)

- NB-N02(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 NB-N01(샌들) 인조가죽 ₩30,000 Size : 225~250
- NB-C03(캐주얼) White ₩4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 NB-C01(캐주얼) White ₩34,000 고급 인조 가죽 Size : 225~250
- NB-C02(고급형 캐주얼) Black ₩60,000 천연 소가죽, 돈피 Size : 225~250
- NB-SW01(여성용 샌들) Black / Beige 내피 : 소가죽 외피 : 고급인조가죽 Size : 225~250 ₩40,000
- NB-C07(캐주얼) 진박색 ₩60,000 천연 소가죽 Size : 225~250

- 런닝화 HSO11 네이비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80mm 150,000 → 95,000
- 런닝화 HSO10 흰색/분홍색 소재 : 소가죽, 에어메쉬 Size : 225~255mm 150,000 → 95,000
- 남성용 구두 NB-MD02 Brown 소재 : 소가죽 Size : 245~280mm 140,000 → 60,000
- 스니커즈 Black/White 소재 : 최고급 소가죽 Size : 225~280mm 180,000 원